

# 불교 50년을 움직인 100인

## “격동의 세월에 지혜·자비 종자 뿌렸네”

민족정신과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는 '해방의 격랑'에서 시작된 현대사 50년의 시간을 따라 숨가쁘게 달려 왔다. 정치·경제·사회·문화가 거센 파도처럼 일렁거렸다면 불교 역시 그 질곡의 파도로 현대사와 동행해 왔다.

광복 50년을 맞아 결코 손대지 않았던 반세기 불교사를 되돌아보며 고매한 수행력으로 대중을 교화하던 열반에 드신 큰스님, 중무행정에서 산맥을 이룬 스님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몸바쳐 '부처님 일'을 한 주역 100인을 선정해 보았다. '불교 50대 사건'과 더불어 이들의 발자취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여는 지표로 삼기 위해서다. 지면관계상 더 많은 보살들을 소개 못함을 아쉽게 생각한다. <편집자 주>

- 고승**
- ◊한암스님:경허의 대표적 전법 제자. 1941~45년 조계종 초대총정을 지냈다. 6·25 전쟁때 상원사 소각을 막은 것으로 유명.
  - ◊효봉스님:판사생활을 하다 38세에 석두스님을 은사로 득도. 54년 정화불사를 이끌었다. 62~66년 통합종단의 초대 총정에 추대. 제자로 구산, 법정, 고은, 박완일 등.
  - ◊동산스님:전불선인 3년 결사를 마치고 법어사 급강계단의 전개화상이 됐다. 1958년 조계종 종정 취임. 문하에 성철, 자운, 지효, 능가, 광덕스님 등.
  - ◊전강스님:전국 유명선원 조실역임. "사리를 수수하지 말고 인친 앞바다에 뿌리라"고 당부. 사후에 법이 더 빛났다. 제자에 송담, 능가, 정락, 정무, 정대 등.
  - ◊경봉스님:통도사 극락선원 등에서 50여년간 후학지도. 한시·시조·묵묵에도 뛰어난 작품 통해 대중을 교화.
  - ◊금오스님:동산·청담스님과 더불어 정화에 앞장. 제자에 일산, 월남, 범명, 탄성, 혜정, 월주, 월서, 월탄스님 등.
  - ◊함곡스님:동래 묘관음선원에서 전국 남자들 지도. 주요선원 조실로 선종 진각, 제



### 한암·효봉·경봉·성철 등 높은 수행력으로 국민정신 이끌어

- 자운, 진제스님 등.
- ◊촌성스님:전국 유명선원 조실을 두루 지낸 '육영이 선사'. 시원한 법문이 유명.
  - ◊해암스님:덕숭총림 초대방장. 저서로 <선관법요> <선문활요> 등. 100세 고승으로 알려졌다.
  - ◊고암스님:선·교·유에 모두 밝았고 무소유의 삶을 지냈다. 해인사 백련사 직지사 법어사 선원 조실 역임. 1967·1972·1973년 3회에 걸쳐 조계종 종정을 맡았다.
  - ◊구산스님:69년 조계총림 개원. 초대방장. 송광사 불일국제선원, LA고려사, 카멜레온사 제비바늘사 등을 개설해 국제포교에 크게 기여했다.
  - ◊지운스님:유학에 정통. 49년부터 비구계 본 비구니계법 범법정 사미니의 등을 한문본과 번역본 출판. 45 하안거 성안.
  - ◊성철스님:67년 해인총림 방장. 81~93년 조계종 종정. 철저한 수행과 계율로 현대 한국불교 최고의 수행자로 꼽히고 아울러 국민의 스승으로 대중포교에 크게 이바지.

◊서의현:86~94년 조계종 총무원장. 유일하게 임기를 채우고 3임을 강행하다 개혁세력에 의해 퇴진.

### 포교·신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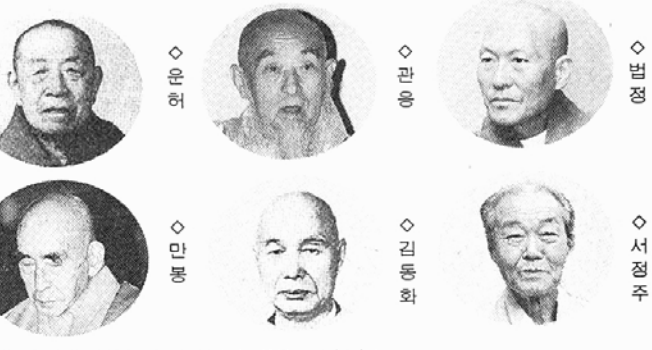
- ◊대은스님:알기쉬운 경전 번역, 해설서 등 평생에 대중포교사로 활동했다. 45년 해방과 함께 민주에서 귀국, 강석을 열어 교화를 폈다. 팔만대장경번역위원회, 동국역경위원회를 역임하며 대장경 한글화에도 앞장.
- ◊홍도스님:방울스님으로 불릴 정도로 대중속에 직접 뛰어들어 불을전파. 새벽 3시면 도심 골목을 돌며 도량석을 했으며 항상 불사를 나눠주었다.
- ◊장경호:불교대중화운동의 선구자. 75년 사제 30여6천만인을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내놓으며 불교중흥을 위해 싸웠다고 하여 재단법인 대한불교 진흥원이 설립됐다. 불서보급사 대원장사 대한불교교관들을 설립. 장학사업 군부대 및 사법법당간담등 각종 불사를 지원했다. 신학단체 대의원 창립.
- ◊황산덕:대학생불교연합회 창립에 앞장섰으며 52년~66년 롬비니불교학생회를 이끌었다. 80년 불교진흥원 이사장에 취임. 별세할 때까지 불교발전에 헌신했다.
- ◊승산스님:명실상부한 해외포교의 선두 주자. 67년 7월 한국불교 해외진출을 위해 일본에 흥법원 개소를 시작으로 홍콩 미국 폴란드 등 전세계 12개국에 50여개의 선원을 열었다. 소련 남아프리카공화국에도 선원을 개설했으며 세계평화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도안 대한 심우스님 등이 해외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 ◊광덕스님:불광의 범주 및 월간(불광)발

장을 맡아 부산불교를 이끌고 있다. 86년 학교법인 금정학원 이사.

- ◊박완일:80년대 조계종 전국신도회 회장을 역임하며 불교대중화에 앞장. 동국대 총학생회장, 한 중 흥공불교협회장 역임. 70년 월간 (법문)을 창간했다. 72년 서울 신도회에 불교교양대학 개설.
- ◊선진규:진주 봉화사에 청소년수련원을 설립, 수련을 통한 포교에 주력. 동국대 총학생회장, 대한불교청년회 10·11대 회장 역임. 69년부터 조계종 중앙상임포교사.
- ◊황형석:70년대 10여년간 삼보법회 회장 역임하며 대중법회 선도. 전국신도회 부회장을 맡아 신도회 발전에 앞장섰다. 조계종 종정, 조계종 총무원장상수.

### 교육

- ◊관용스님:일본 용곡대 수학. 김용사·직지사 등에서 강사 역임. 무문관 6년 수행. 81년 전국승가학원 교수로 초대회장.
- ◊지관스님:80년 동국대 불교대학학장. 84년 대학원장. 88년~90년 동국대 총장 재임시 경주의대 부지대입등 학교발전의 획을 그었다. 불교계 본격 학술단체인 가산 불교문화연구원 설립.
- ◊문재스님:44년 봉은사 강원 강사. 65년 동국대 역경원 역경위원, 건국대 교수. 88년 태고종 동방불교대 학장. 선암 승가대 학장 역임. 88년 태고종 총무원장 역임.
- ◊요섭스님:동학사 강사. 57년 동학사 전강. 66년~69년 운문사 강원 강주. 79년 봉녕승가학원 강사. 봉녕승가대학 학장.
- ◊명성스님:58년~61년 선암사 강원 강사. 61년 70년 청통사 강원 강사. 70년부



◊월운스님:93년 10월 역경원장에 취임. 97년까지 250권 분량(95.7 현재 174권 번역 출간)의 한글대장경 완간불사를 추진하고 있다. 운허스님의 상좌로 70년대부터 선문 협승 원각경 금강경을 번역했다.
- ◊김동진:이종익 송성수:역경원 초기부터 역경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많은 경전을 번역하는 한편 역경사 양성에도 크게 기여했다. 특히 김동진씨의 법구경(현암사 펴냄)은 최초의 법구경 번역서로 현재까지 대표적인 번역으로 꼽힌다.
- ◊박경호:69년부터 역경원 출판부장으로 있으면서 외부출판사와의 문제를 조정하는 한편 약사경 관음예경 청허당집을 번역 출간. 94년2월 퇴직하기까지 30년 가까이 역경사업에 헌신. 불교인문에도 기여.

### 학술

◊권삼로:46년 동국대 교수 취임. '고려사 불교초론' '이조실록 불교초론' 등 수많은 저 다수.
- ◊김지연:일본 동경대서 화엄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 국내보다 일본에서 더 잘 알려진 화엄학자. 76~86년 일본 인도학·불교학회 이사. 89년 (원효상사의 철학체계) 등 경전연구 논문과 불교사 논저 다수 저술.
- ◊김영태:69년에 우정상 교수와 최초로 한국 불교사를 정리한 <한국 불교사> 저술. 한국 불교사 관련 논문 1백여편 발표.

### 출판

◊법정스님:'영혼의 모음'(72년)을 비롯 '서있는 사람들' '산방한담' '달과 침묵' 등을 펴냄. 특히 '서있는 사람들'은 78년 발행이후 1백만부 이상 팔려나가는 밀리언 셀러를 기록.
- ◊일엽스님과 용산스님:'정흔을 불사르고'(62년, 문선각) '여보게 저승갈때 필가지고 가지'가 초베스트셀러로 포교에 기여.

## 한암·효봉·경봉·성철 등 높은 수행력으로 국민정신 이끌어

### 해외포교·역경 활발 '중흥의 싹' 틔워... 후학 육성에도 주력

- ◊무진정스님:일찍이 대중포교에 헌신. 직접 포교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동국대 초대교법사를 역임. 조계종 24대 포교위원장을 역임하며 중산차원의 포교체계를 수립했다. 74년에는 전국 53개지역을 순회하며 불교사상강연회를 가졌다.
- ◊대행스님:국내외의 30여곳에 한가음선원을 개설해 생활법문으로 마음되는 법을 펴고 있다. 미국 이글러힐(대통령과 나라를 위한 자문화) 명예회원.
- ◊심종스님:71년 대구교도소를 중심으로 재조사교화에 투신. 재조사자의 대부분 불린다. 불교도 경생보호위원회 위원장, 재조사교화후원회장 등을 맡았으며 이중 호국영령위령탑 건립에도 앞장서고 있다. 교정대상 특별상 수상.
- ◊서돈각:서울대학교 교수시절 대불린 창립 산파역을 맡았다. 동국대총장, 탄허불교문화재단 초대이사장, 학술위원장 역임. 92년 불교진흥원 이사장. 93년 무애문화재단 이사장으로 불교와 문화발전에 주력.
- ◊이윤근:80년이후 줄곧 부산불교신도회

- 터 비구니사관학교로 불리는 운문사 승가대학장.
- ◊김법린:52년 문교부장관. 63년 동국대 총장. 95년 보훈처로부터 독립장 추서.
- ◊백성유:50년 내무부장관. 53년 동국대 총장. 금강강강의 설립으로 대중포교·포교에 기여.
- ◊이선근:동국대 총장. 정신문화연구원 초대원장.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 ◊정재각:78년~82년 동국대 총장. 79년 동국대 대학원장 역임.

### 역경

- ◊운허스님:64년 동국역경원이 개원하자 초대원장에 취임. 80년 입적하기까지 주역역서 30여종을 남김. 역경원장 이었던 50년대부터 출판사 '법보원'을 설립해 법화경 열반경 유마경 등을 번역해 역경의 기틀을 마련했다. 최초의 '불교사전' 펴냄.
- ◊서주스님:운허스님의 역경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64년 역경원이 개원하자 역경부장으로 활동함. 85년에는 재단법인 역경사업진흥회를 설립했으며, 95년 역경원후원회장을 맡아 노령에도 불구하고 역경을 지원하고 있다.
- ◊탄허스님:75년 초발심자경문부터 화엄경에 이르는 17종의 번역서를 펴냈으며, 이 업적으로 인촌문화상과 은관문화훈장 받음.

- 저술을 남겼다. 92년에 <퇴경당전서> 전 10권이 나왔다.
- ◊김동화:54년 <불교학 개론> 저술. 대승불교에 교리발달사, 선종사상사 등 불교사 연구에 큰 업적을 남겼다.
- ◊조영기:62년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 초대 소장을 맡았으며 <신라불교의 이념과 역사>를 비롯 비경있는 논문 다수 발표.
- ◊인계현:53년 동국대 대학원 설립 후 '팔관회고(八關會考)'로 최초의 석사학위.
- ◊김은학:73년에 동국대 승가학과 교수. 74년 불교문화예술훈원장. 신라불교 문학, 향토문화연구에 큰 업적.
- ◊이기영:67년 <원효상사> 출간등 원효연구원의 권위자. 74년 최초의 불교 사설 연구원인 한국불교연구원 설립. 86년에 불이상 제정.
- ◊홍정식:73년 학국불교학회 초대회장. 74년에 '법화경 성립과정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 취득. 이후 현대·법사사상 연구하며 후학 양성.
- ◊이종익:75년에 일본대정대학에서 '보조국사 연구'로 박사학위 취득. 다수 논문과 '사명대사' 등 소설도 펴냄.
- ◊황수영:74년 동국대 교수 취임하면서 '한국 범종연구회' 창립. 불상, 금석문 등 불교미술 관련 논문다수. 고교학발전에 기여. 동국대총장 역임.
- ◊우정상:불교사학의 기초를 다진 학자. 57년 '원각사학의 사상적 연구' 등 중요한

### 문학

- ◊이규택:75년 출판등록 이후 '화엄철학' '대승기신론' 등 목격한 불교학술서를 출판. 경서원 대표.
- ◊윤재승:80년 '산방한담' 창설. 교계에서 가장 많은 2백여종의 불서 발행. 불교학총서 33권까지 발행. 불교학 전문출판사로 자리를 굳혔다.
- ◊이봉수:본격적인 불서 전문서점 보련각 운영. 각종 경전 영인등 불서보급에 기여.
- ◊원택스님:장경각설립(87년), 성철스님 법어집 11권을 비롯 선림고경총서 37권 발행. 불교출판협의회 회장으로도 활동.

모든 사찰에서 마이크 성능을 시험해 볼 기회를 드립니다.

**유코전자의 고성능 마이크는 각종 법회 봉행, 설법전용 마이크로, 단 한 개라도 심혈을 기울여 제작하는 예술작품입니다!**

DX-707 스탠드 마이크는 작은 음성도 잘 들어가는 흡음력으로 큰스님, 원로스님들께는 꼭 필요한 마이크라고 감히 권해드립니다. 「음향연구가 金文華」가 설계한 작품이오니 사용해 보십시오.

전국 사찰의 엠프, 스피커, 마이크 등에 문제가 있거나, 궁금한 것, 혹은 기술적으로 도움을 원하시면 문의하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3년 保証

DX-707 분리형 스탠드 마이크  
DX-707 스탠드 마이크는 1. 설법시 마이크에서 소리로 전달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2. 값비싼 외제 마이크보다 멀리서 잘 들어갑니다.

분리형 스탠드 마이크  
•공급가 : 180,000원

설법 전용 최고급 YD-675 다이내믹 마이크  
•공급가 : 90,000원

YD-675 마이크는 '배-이'하는 하울링 영향 없이 부드럽고 맑은 소리로 편안히 사용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마이크입니다.

V-606LC  
설법용 고급 마이크  
•공급가 : 65,000원

V-606LC 마이크는 규모가 작고 좁은 법당에서 '배-이'하는 하울링 영향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마이크입니다.

T-7 경전강조 설법 각종법회용  
•공급가 : 45,000원

T-7 핀 마이크는 감도가 매우 높으므로 엠프의 고음과 저음 조절 손잡이를 좌측으로 낮추면 뒤 불을 켜서서 울려 소리크로부터 다소 멀리서 사용하십시오.

유코전자  
본사 : 158-0911 서울시 양천구 신원1동 226-7  
TEL: (02) 605-3235, 697-9976, 693-7537 / FAX: (02) 695-9676